

담양군, 1천230억 활용 수해 복구 '안전망' 구축

향구적 재건 주민 생명·재산 보호

공공시설 재건 1천167억원 투입

일상 회복 지원금 59억원 지급

담양군은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안전담양'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 향후 더 큰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향구적 기반 시설을 재건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확보한 1천230억원 규모의 호우 피해 복구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격적인 재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마무리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복구 예산 운용 현황과 개별 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7월16-20일 내린 극한 호우로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 이에 따른 복구비로 총 1천230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확보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천167억원

은 도로와 하천, 교량 등 마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기반 시설 재건에 집중 투입된다.

파손 부위만 수리하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설계를 대폭 강화하는 '향구적 복구'에 방점을 찍고 기후 위기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집행에도 속도를 내며 일상 회복에 청신호를 켜었다.

총 63억원 중 정부 기준에 따른 부적격 요소를 제외한 59억원이 이미 3천425세대에 지급됐다.

주요 지급 내역은 위로금 21억원, 농작물 침수 피해 12억원, 농경지 유실 9억원, 주택 침수 8억2

천만원 등이다.

주택 침수의 경우 가재도구 피해 지원 차원에서 35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생계 안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모든 지원금은 행정의 임의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형평성 있게 집행됐다.

현재 관내 재해복구 사업장 238곳 중 88곳은 이미 복구를 마쳤으며, 나머지 15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발주 단계에 있다.

군은 다가올 장마철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분할계약 등 신속 추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대규모 사업장은 주요 구조물 공정을 우선 완료해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를 넘어, 재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담양의 근본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정영실 재난안전과장은 "1천230억원의 예산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기반 시설을 다시 세우는 데 소중히 쓰이고 있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더 안전한 담양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보성농협,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고품질 농특산물 전국 밥상 오른다

韓외식업중앙회 등 3자 MOU

보성쌀·녹둔 연간 안정적 공급

보성군은 외식업계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에서 보성농협,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보성쌀과 녹둔 등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고히 구축, 지역 농가

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송해경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장, 이문군 보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로 개척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농특산물 구매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정책 협력과 고품질 농산물의 연간 안정적 공급망 유지, 전국 회원 업소 대상 우선 구매 전방위 홍보 등이 포함돼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탄탄한 소비처 확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대

폭 넓히며, 침체된 농업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보성의 고품질 농특산물이 외식업계를 통해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농가와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에 앞장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농가와 외식업계, 농협이 다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의 출발점임을 확고히 입증했다"며 "보성의 명품 농특산물이 국내외 다양한 시장에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군, '로즈캔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28-29일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참가인원 日 40명·참가비 1만5천원

곡성군은 17일 "오는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원에서 '장미빛을 담다'를 주제로 한 로즈캔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장미의 향기와 감성을 캔들에 직접 담아볼 수 있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행사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하루 20명씩 총 40명으로 한정해 모집할 방침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천원이며, 체험을 희망하는 방문객은 오는 3월22일까지 온라인 네이

버폼(https://naver.me/xnOaBEWJ)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시범 운영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 감성 공간인 '장미의 뜰'에서 장미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해 나만의 캔들을 제작하고 완제품을 기념으로 챙겨갈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장미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며 "따스한 봄날 장미의 뜰에서 일상 속 여유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여수시, 미래 선도 'AI 융합 전문강사' 양성

여수시는 17일 "이순신도서관에서 미래 기술 교육을 이끌어갈 'AI 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미래직업협회와 협력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관련 자격증 취득 중심 맞춤형 실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 세부 프로그램은 AI GPT 교육전문가, 인공지능 교육지도사, AI 코딩지도사, 기후변화 교육전문가 등 총 4개 분야로 꾸려졌다.

각 과정별로 25명씩 모집하며 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시민들의 참여 접근성과 편의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3명의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올해 역시 모집 기간에 맞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

행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이순신도

서관(061-659-2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미래 교육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급증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5월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군은 17일 "오는 5월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가지 형태로 나눠 시행된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천㎡ 이상 5천㎡ 미만의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농가 내 지급 대상자가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총 8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업인의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접수 마감 이후 엄격한 자격 요건 검증과 현장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대상자들에게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2년 연속 선정

물품 배송·공공서비스 실증 병행

고흥군은 17일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1천만원을 확보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 물품 배송과 공공서비스 실증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광도와 상·하하도 등 도서 지역을 비롯해 거금해안양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출공원 일대에 물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 주민 생활 편의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주성학 기자

올해는 단순 배송을 넘어 치안 순찰과 산불 감시, 양식장 녹조 예찰 등 밀착형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배송 거점 3개소와 배달점 15개소 등의 운영 체계를 완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드론 선도 지역의 입지를 탄탄히 굳힌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물류 복지 및 지역 안전을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드론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K-교육 선도' 비전 닦아 올려

20일 백운아트홀서 선포식 개최

광양교육지원청이 AI 시대에 발맞춰 지역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17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지역 교육공동체 90여명을 초청해 '광양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광양의 배움, K-교육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김여선 교육장이 직접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역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 주제인 학생을 중심에 둔 스토리

텔링으로 평생 즐거운 배움터를 조성하고, 지역 취업 및 정주 여건과 연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다.

이번 행사에는 권항영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여하는 비전 토크가 열리며, 마지막으로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괜찮아, 잘될 거야' 합창으로 서로 격려하며 막을 내릴 예정이다.

김여선 교육장은 "배움을 실천하며 삶으로 연결하는 평생 즐거운 배움터를 구축해 K-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